ΚΟΚΚΟς

2020 AUG VOL. 221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일립관 B101 호가 리모델링 공사중이다. 9 월초가 되면 한층 산뜻하고 쾌적한 종합강의실 (실험실습실) 로 변모해 학우들과 함께 하게 된다. (관련기사 7면)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www.bible.ac,kr 발 행 인 _ **강우정** 편집주간 _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TEL _ **02-950-5401**

성서대학교회 교인들

"성서학과 시입생 1 학기 등록금은 우리가 책임진다"

성서대학교회(담임 최정권 목사) 당회는 2021 학년도 성서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을 교회가 전액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서학과 신입생 정원은 약 65 명 (정원 내 63 명 , 정원 외 2-3 명) 내외 이며 , 이들이 받는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과 학교 장학과 기타 장학금을 빼면 이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총액은 약 8 천 8 백만 원 정 도로 보인다. 대학교회가 이 금액을 감당, 본인은 등록금 부담 없이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신학대학의 위기 상황을 교회가 선제적으로 감당하겠다는 사명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당회는 첫 학기 등록금을 부담하지만 선한 사업을 돕는 손길이 해마 다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닥쳐오는 대학 위기와 맞물려 교회 일꾼을 지망하는 신학 지원자가 매년 급감 추세에 있다. 지난해 20 개의 주요 교단 대학교 신학 과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1.5:1 이었다. 7 개 대학 신학과는 미달이었고 나머지 대학들 도 겨우 인원을 채웠다. <뉴스앤조이 2020.01.30 > 우리 대학도 2020 년도 성서학과 경쟁률은 수시 2.15:1. 정시 1.29:1 로 겨우 정원을 채운 형편이다.

신학과 진학을 꺼리는 이유로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 실성 . 학교 인지도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하다 . 이 같은 악순환이 내일의 교회 지도자를 누 가 양성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문제에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러 이유를 다 풀어 갈 수는 없지만 경제적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성서대학교회 교우들의 결단이라고 보인다.

성서대학교회 최정권 목사는 목회자 지망생에 대해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온 목회자이다. 그가 성서대학교회에 부임하기 전, 미국 필라델피아 챌튼 햄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에도 해마다 미국 내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한국목회자 15~20 명을 장학목회자 프로그램으로 선발 . 3 박 4 일 일정의 알찬 세미나 를 개최해 왔다. 참가지들에게는 항공비와 학비 도서비 등을 지원해 주었고 챌튼햄교회 의 이러한 선행이 15년간 지속되면서 미주와 국내 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당 시 참가자 대부분은 현재 국내에서 목회자와 교수 및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 성서대학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들 (2019 년 성탄감사예배)

미니설교

박태수 목사



심지가 견고한 자 (이시야 26:3~4)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신앙인이 가 져야 할 삶의 지혜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 는 것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사전적 의미 는 '사상이나 , 생각 , 의지 또는 마음이 흔들림 없이 꿋꿋이 서서 견디어 내는 자'를 말한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 나 터가 견고한 집이 바람이 불고 폭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 여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약속을 주 셨다. 완전한 평강(perfect peace)을 주신

다는 말이다. 이유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신뢰(trust)란 전인 격적인 신뢰. 확신. 의지. 안전함 등을 의미한 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 신함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가 견 고한 자 ' 란 자신의 명철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 원히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자이다. 현실이 어 렵고 불안하며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영원한 반석되신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 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담대할 할 수 있고 흔 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가 되는 것이다.

Stand firm in the faith

오승록 노원구청장

"한국성서대학 등에 5 억 돕겠다"

대학혁신사업단서 시업계획수립 추진키로



▲ 노원구청이 지난 7월 우리 학교 옆 당현천 변에 바닥분수와 야외 음악 공연이 가능하 무대를 완성, 주민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 장마철 홍수의 영향으로 바닥 일대에 토사가 보인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관내 대학들이 큰 틀에서 상이탑의 높은 담을 허물고 구민들의 폭넓은 평생 학습의 장으로, 탈바꿈 해 주기를 기대하며 큰 걸음을 내디뎠 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 6월 3일 관내 7개 대학 총장을 초청, 저녁 식사를 겸한 가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총장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총장들은 등록금 동 결,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외국 유학생 입국 단절 등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일상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를 듣고 있던 오 구청장은 각 대학에 대해 일률적으로 5 억씩, 35 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너무 놀라 말문을 잇지 못했다, 그 는 관내 대학들이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라는 점과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 드는데 대학이 크게 기여할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 대학이 어려울 때 노원구가 힘 을 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들을 강조하였다. 그는 5억에 대해 어떤 조건도 덧 달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삼육대학교 김일목 총장,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 서울여자대 학교 전혜정 총장 . 육군사관학교 정진경 교장 . 인덕대학교 윤여송 총장 . 한국성서 대학교 강우정 총장이 참석하였으며 광운대학교 유지상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노원구청 인사로는 비서실장 박경래, 청소년과장 김지선, 평생교육과장 이영재 등 이 참석했다. 구청장은 다음 날인 6월 4일 7개 대학총학생회 임원들과도 만나 총 장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였다.

오승록 구청장의 대학지원 약속은 실무자들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다. 7월 24일 노원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은 각 대학의 평생교육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간 담회를 갖고 '구청장 – 대학총장 간담회 '의 대학지원제안 추진 방안을 논의 하였다.

추진 목표는 대학을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개방되도록 할 뿐 아니라 노원 구 전역을 평생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9월 중 사업 계획을 세워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은 10월까지 예산을 편성. 내년도 예산 에 반영하고 2021 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구청이 예시하는 사업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주민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 육: 디지털 뉴딜 * 코로나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힐링교육: 그린 뉴딜 * "사 람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성교육: 휴먼 뉴딜 등이 있다.

우리 대학은 오승록 구청장의 후원 제의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학교 차원의 기본계획수립과 추진을 대학혁신사업단(단장 강규성 부총장)이 맡아 추진하도록 했다. 대학혁신사업단은 대학의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욕구에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과 수행의 전 과정을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혁신사업의 주요 역점이 지역 사회의 그늘진 소외계층을 돕는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구청의 관심분야와 일 치한다는 장점도 있다.

학교법인

제 4 차 이사회 개최

2020 년도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4차 이사회가 24일 밀알관 회의실에 서 개최되었다. 반종원 이사장의 사회로 법인 및 대학의 추가경정 예산 등이 논의되 었다.

설립자 제 22 주기 추모예배를 마치고 진행된 이사회는 8월 31일자로 정년을 맞 는 최영태 (성서학과) 교수의 정년 퇴직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과 대 학 및 부설기관인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요청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 통과 시켰 다.

신입생 밀알훈련

각 학과별 하루씩 갖는다 8월 14(금)~21 일까지. 노동과 산행 프로그램

2020 학년도 신 · 편입생 밀알훈련은 각 학과별로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하루씩 진행된다. 밀알훈련은 매년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어온 훈련인데 올해는 코로 나 -19 의 사태에 따라 하루로 단축해 실시한다.

훈련일정은 8월 14일(금) 성서학과를 시작으로 18일(화)사복, 19일(수)영보, 20일(목) 컴소와 대학원. 21일(금) 간호학과 순서로 이어진다.

훈련대상자는 266 명이며 신입생 234명 졸업예정자 32명(학부 및 대학원)이 참여하게 된다. 자원봉사자 110명 (교수 42. 학회 43. 총학 20. 조교 5명)도 합류 해 함께 돕는다.

참석자들은 당일 오전 8 시 학교가 준비한 버스를 이용해 포천밀알훈련센터로 향 한다. 프로그램은 현장 도착 후 개회예배와 현장 노동. 중식을 나누고 둘레길 산책 및 성찰저널 작성을 끝으로 오후 6 시 학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 침을 고려해 각 버스마다 23명(45인승)이 탑승하게 된다. 탑승 전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거치며 현장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신앙훈련과는 이번 밀알훈련 여부를 앞두고 정부의 감염예방 정책 순응과 학교 정체성 제고의 사이에서 많은 논의과정을 벌였다. 그 결과 일일 프로그램을 갖되 핵 심인 노동과 산행 중심으로 개설하게 됐음을 밝혔다.

훈련대상자들은 필수인 마스크와 성경, 개인 세면도구, 등산화(운동화)와 긴 바지 (여벌 옷 필수) 모자 및 쿨토시 등의 준비가 요구된다.

* 학교 출발 : **오전 8 시 정문** * 학교 도착 : **오후 6 시 정문**

* 밀알훈련 문의: 950-5439 (신앙훈련과)

* 밀알훈련센터:**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11 번지 (950-**5595)

일립 강태국 박사

제 22 주기 추모 예배

최정권 목사 .

"설립자의 좁고 험한 길이 옳았다"



▲ 최정권 목사가 강태국 박사 제 22 기 추모예 배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우리대학 설립자인 一粒 (일립) 강태국 박사의 제 22 주기 추모예배가 24일(금) 오전 11 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최정권 (27 회, 성서대학교회 담임) 목사가 '세상에 나타내소서 (요 7:1~9) 제목 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설립자가 한반도 복음화를 꿈꾸며 이뤄온 비전에 따 라 우리는 여기에 있고 우리의 미래를 되묻기 위해 이 자리해 있다고 말했다. 설립 자는 본인의 명예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학창 시절 그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능력도 있고 목회 역량도 있는 분이 왜 좀 드러내지 않나 싶었다. 세월이 흐른 후 설립자가 걸었던 좁고 험한 길은 옳았고 그것이 성경의 길이었다는 걸 깨달 았다. 자신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가 가리운다는 것을 설립자는 알았다. 그가 걸어 온 길은 우리 대학 교가에 나오는 번제단의 길이었다. 설립자가 가신 길을 따라 주 를 닮은 수많은 목회자와 훌륭한 일꾼이 곳곳에서 활약 중이다.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정 총장은 인시말에서 "혼란의 시대이지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 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충성을 다하는 성서공동체 되자"고 말하였다.

말씀에 앞서 홍설자 (10회) 법인 이사가 부귀영광 멀리하고 주를 향한 삶을 걸어 온 설립자를 본받자며 기도하였고 반종원(31회, 수원침례교회 담임)법인 이사장 의 축도가 있었다.

대학혁신사업

2 차년도 계획서 제출

스마트 캠퍼스 및 시설환경개선 집중 (34%)



지역사회문제해결 (LO.CO) 공모전 시상식

조윤경 부장

"지역사회 접근은 청년의 참된 모습"



▲ 공모전 시상식 후 수상자 전원이 함께 하였다.

우리대한이 대한혁신사업 2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지난 10 일 한국연구재단에 제 출했다. 대학혁신사업단(단장 강규성)이 제출한 2 차년도 사업은 "세상을 변화시 키는 밀알인재 양성 모델 구축 "을 목표로 4 대 추진전략과 10 대 프로그램 아래 24 개 세부 프로그램이 맞물려 운영된다. 계획서는 1 차년도 평가 결과가 반영돼 9 개 자율성과지표를 4개 지표로 수정 제시했다.

2 차년 전체 사업비는 13 억 4 천 5 백만 원이며 교육영역의 학습자 중심 교육환 경개선사업 (4 억 6 천만 원, 34%) 의 비중이 제일 높다. 이는 지난 1 차년 사업에 서 시설개선의 연속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스마트 캠퍼스 구축과 강의 실 환경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일립관 101 호가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학습 친화적인 실험실습 및 다목적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 (7 페이지 참조) 강의 실 냉난방 개선작업, 컴퓨터실과 실험실습실 기자재 설비를 비롯, 학사인트라넷용 모바일 서비스 외 학사행정접속기록관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류 교체가 차 례로 진행된다. 또한 융합모듈전공제와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도 뒤따를 예정이다.

산학영역에는 글로컬 취 · 창업 역량혁신사업 (9 천 8 백만 원 . 7.3%) 비중이 높 다. 취 · 창업진로를 위한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직업탐색용 실험실습 기자재가 구비된다. 이밖에 창업아이디어 및 기술경진대회와 창업 동아리 지원사업 도 이어져 학우들의 창의적인 영역이 활기 띨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임팩트연구소 (소장 안정선)가 주최한 지역사회문제해결(LO.CO)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9일 천마홀에서 진행됐다. 공모전은 13개 팀이 지원하였고 심사를 거쳐 10개 팀이 선정되었다. 선정 팀에게 각 20만원 이 지원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백여만 원의 사업비 가 지원될 예정이다.

조윤경 전공교육부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문제의식으로 접 근 . 고민하는 자세가 청년의 참된 모습 "이라고 격려했다 . 안정선 소장도 "이웃 의 어려움을 향해 다가선 건 용기 있는 행동이요,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이다 "라 며 힘을 북돋아줬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혁신사업에 따라 학생주도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임팩트형 사업이며 기간은 8월부터 11월 말일까지 4개월간 펼쳐진다. 'MCM' 팀(김도 훈 사복 4년 .외 3명)은 의료진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 멘토링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코로나 19로 지친 이들에게 용기를 더해주는 사업으로 5백여 만 워의 사업비가 사용될 예정이다. 학우들은 이번 사업 (9개 팀, 53명)을 통 해 지역 내 세대와 계층의 중심에 뛰어들어 고락을 나누며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의지를 전하게 된다. 김미숙 실행위원은 이번 사업에 3 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 라며 추진 목적을 살려서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대학의 이미지가 전해지면 좋겠 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공모전에 입상한 팀명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성서대 문지기: 노원구 코로나 방어 ▲ 희망있죠: 반려식물로 노인 우울감 해소 ▲ 시장한끼: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살리기

▲ MCM: 의료진 자녀 양육 멘토링

▲ 온라인 정서지지: 독거 어르신의 온라인 정서지원

▲ 육삼이 : 신구세대의 정서적 교류 ▲ 온행 : 온라인 여행 나누기

▲ 그린나래: 저소득주민 무료진단봉사 ▲ 동행하람: 고협압환자 만보걷기 프로젝트 ▲ 신 박 한: 가족과 함께 여가 즐기기

20-2 학사운영.

대면 교육 워칙 확인

"영적교육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해야"

2020년 2학기 학사운영은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의 감염병 예방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정부의 제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 다. 7월 23일 긴급 교무위원회에서는 우리 대학 교육의 큰 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과 훈련 등 영적교육인데 그 방법은 '얼굴과 얼굴'(고 전 13:12)을 대하여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 방향 으로 교육을 적극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코로나 -19 사태가 엄중함을 인식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은 물 론 '정부가 정한 일일 확진자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전면 대면 수업이 가능한 대학원과 달리 학부는 강의실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대면'. '비 대면 '수업을 정하기로 하였다 [표 1 참조].

그러나 과목 담당 교수와 수강하는 학우들이 '대면 수업'에 합의하면 학교는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다. 또 학우들의 등 교일 수를 줄이기 위해 기본 3 학점 과목의 강의 주 단위 시간은 '75 분 주 2 회 수 업'을 '150 분 주 1 회' 연강 수업으로 횟수와 시간을 조정해 운영키로 하였다.

4 대 신앙훈련인 매일예배와 수요전도훈련, 부흥사경회(2 학기)중 매일예배는 평소와 다름없이 매일 12시 로고스홀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동영 상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수요전도훈련은 비대면으로 시행한다. 2 학기 초에 갖는 부흥사경회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매일예배와 동일하게 12 시 로고스홀에서 드리며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각 학과별 수업 계획은 전공교육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1 학 년 학우들의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1 학년 학우들은 학교의 정체 성, 설립이념 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서학과는 교수회의에서 1 학년 BRC(Bible Reading Class)를 비롯하여 전 과목을 가능하면 대면교육으로 운영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으로 전면 대면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BRC. 원어(히브리어, 헬라어), 실습과목만이라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간 호학과도 전 과목 대면수업으로 운영하며 다른 학과들 역시 대면수업 비율을 최소 1/3 이상 $\sim 1/2$ 까지는 끌어 올린다는 의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丑1] 대면, 비대면 수업 결정 기준

대면 , 비대면수업 결정 기준		수업 운영 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일일 확진자 수	학 부	대학원	
3 단계	100~200 명 이상	전면 비대면수업	전면 비대면수업	
2 단계	50~100 명 미만	총개설강좌 1/3강좌 대면수업 총개설강좌 2/3강좌 비대면수업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병행	
1-1 단계	10~50 명 미만	총개설강좌 1/3강좌 대면수업 수강인원 25명 이하 강좌 대면수업 이외 강좌 비대면수업	전면 대면수업	
1-2 단계	10 명 미만	어스테마 되다		
일상복귀	0명	전면 대면수업		

일립관 B101 호실

리모델링 공사

실험실습실 . 종합강의실 등 복합용도



▲ 리모델링 후 새롭게 변모하게 될 종합강의실 (조감도)

일립관 B101 호 (279 m², 84 평) 와 그 주변 (165 m², 50 평) 이 리모델링을 거쳐 종합강의실(실험실습실) 및 설교실습 및 신체활동실습실로 새롭게 탈바꿈 한다. 이번 공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실환경개선에 따라 진행되며 9월 초 완공을 목 표로 진척되고 있다.

전체 공사비는 3억 원에 삼경비오티 (대표 박흠이)가 맡았다. 리모델링을 통해 B101 호는 종합강의실 1 곳, 개인 및 설교실습 2 곳, 신체활동실과 교재교구실 각 1 개실이 들어선다. 리모델링의 가장 핵심이 될 종합강의실겸 실험실습실 (279 m² 84 평)은 160 석의 세련된 중규모 강의실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기대감이 크다.

B101 호는 현재의 밋밋한 직사각형에서 무대 중심의 6각 형태로 모습을 달리한 다. 전면 중앙면의 좌우 양측(각 7 미터) 코너를 사선으로 차단, 시선을 집중시켰 고 천장 마감재도 과감히 제거, 높이가 주는 공간감도 맛볼 수 있다. 강의실은 2 · 3 인용 이동식 책걸상 약 160 석이 3 면형으로 배치된다. 뒷좌석 각 3 개열은 단차로 구분된 고정형 책걸상을 배치, 전방 시야가 용이하다, 사선으로 차단한 삼각 공간 은 종합강의실과 별도로 설계, 개인설교실습실과 방송실, 교재교구실이 각각 자리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 층 계단에서 내려와 맞는 좌측 옆 공간도 새롭게 조성된다. 이 공간 을 두 곳으로 분리시켰으며 안쪽(26 ㎡, 8 평)에 소규모형태의 설교실습실을 들인 다. 나머지 공간(40 ㎡, 12 평)은 로비와 이어진 신체활동실이 자리하는데 이곳에 탕비실을 설치, 소모임 장소로도 손색없도록 배려하였다.

이밖에 엘리베이터 출입구 일대가 안락한 로비 공간(93 ㎡, 28 평)으로 조성된 다. B101 호가 지층인 점을 감안해 냉난방과 공기순환 장치는 효율성과 공간 활용 이 장점인 천장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들어설 설교실습실 에는 고성능 카메라 및 음향시설과 최신식 편집용 PC 장비 등이 준비되고 있다. 설 교실습실은 1 인 방송 및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등을 꿈꾸는 학우들에게 새 로운 안식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경비오티 박 대표는 '창의적인 학습과 쉼이 공존하는 공간'이 이번 리모델링 의 컨셉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강의실 및 설교실습실 내부와 로비를 장식하게 될 각종 마감재의 질감과 색상 디자인이 학습과 잘 연계되도록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일립관은 지난 1998년 준공되었으며 B101 실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생활관에 머물고 있는 학우들의 새벽기도 장소로 계속 사용돼 왔다.

팀장 워크숍 'PDCA' 특강 최선희 교수 .

"사업마다 PDCA 과정 녹아 들어야"



▲ 최선희 교수가 팀장들에게 'PDCA'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교내 팀장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 17일 갈멜관 브니엘홀에서 열렸다. 주제는 'PDCA'(Plan Do Check Action) 의 이론과 실제, 최선희(사복)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 되었다.

최 교수는 PDCA 가 개별 사업의 계획수립과 실행, 중간 검증 및 결과에 따른 개 선책 안에 적극적으로 녹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정착될 때 팀별 간 사 업은 보다 분명해지고 양호한 결과로 선순환 된다. 그러나 학사행정은 그 특성상 해 마다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 점을 특히 경 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강이 끝난 후 팀장들은 팀 간 소통을 활성화 하자는데 모두가 공감하였으며 점 점 심각해지는 학교 재정난에 위기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신입 직원 교수학습센터 윤혜진 씨 사무팀 이은영 씨





▲ 윤혜진 (교수학습센터)

(사무팀)

교수학습센터 윤혜진 연구원과 사무팀 이은영 씨가 7월 새로 입사하였다.

윤혜진 연구원은 한동대학교 산업정보디자인 학부를 졸업. 미국 Gateway Seminary(교육리더십 석사), 경희대(교육학 박사)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이 은영 직원은 본교 사회복지학과 (50 회) 졸업 후 건설사인 소원기건에서 재무회 계 관리로, 이후 발달지적장애인을 돕는 비영리단체에서 재직해 왔다.

윤혜진 연구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귀한 직분으로 임할 수 있어 감사하다 "고 밝혔다. 사무팀 이은영 직원도 "매일 매일 채플로 하나님 과 호흡할 기회를 다시 갖게 돼 기쁘다. 부족하지만 겸손함으로 모두를 섬겨 가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서대학 살리기 『KBU 2020 캠페인』

강진 사모 9 천만 원 후원

강진 사모(강우정 총장 사모)가 성서대학 살리기 『KBU 2020 캠페인』에 거금 9 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강 사모는 학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학교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그는 2017 년 9월 새롭게 설립된 간호대학원 발전기금 으로 미화 1 만 달러를 후원한 바 있다.

강 사모가 이번에 후원한 9천만 원은 지난 2월부터 진행중인 성서대학 살리기 『KBU 2020 캠페인』의 전체 목표금액 5 억원 중 18% 에 달한다.

성서대학살리기 『KBU 2020 캠페인』 (누계 218.811.599원 2020, 2, 1~2020, 7, 31)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97,571,000원)

강진 교직원가족	90,000,000	신영옥 동문가족	300,000
경성교회	2,100,000	정명자(중앙성서교회)	100,000
메풀전산초학술교육재단	2,000,000	이다운 동문가족	30,000
부천서문교회	1,020,000	이은광 동문	16,000
김은혜 동문가족	1,000,000	이마리 동문가족	5,000
이희숙 동문	1,000,000		

도므	민	7	.조.
0 1	天		_

10구좌 다빛교회 양연주 3구좌 동두천성서섬김교회 2구좌 금촌성서교회 송현미

1구좌 송원복 오찬양

교직원 및 가족 10구좌 양혜경

5구좌 김원빈 최사랑

1구좌 김요셉

일 반

1구좌 성서대학교회 안수집사회

합계 104,171,000원(일반후원 + 약정후원)

『KBU 2020캠페인』 목표금액 5억원(43.7% 달성)

포처밐알훈련센터 임도 주변 보수공사완료 포천시 산림과 . 침식 방지용 옹벽 쌓기 등



▲ 임도 보수공사로 새롭게 단장된 절개면.

포천밀알훈련센터 내 임도(林道) 주변이 포천시청 산림과의 보수 공사로 새롭 게 단장되었다. 이번 작업은 지난 4월 초순 \sim 6월 중순경까지 3개월간 국비 8천 여만 원이 투입됨으로 이뤄졌다.

그 동안 임도 측면과 연결된 절개지 주변이 비바람에 깎여 더 가파라진 상태였고 쓸려온 토사와 나무가 도로에 쏟아져 통행을 방해해 왔다. 또한 흘러내린 빗물이 도로를 파이게 하는 등의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 되었었다

이번 공사는 침식 현상이 심한 절개지 4곳에 큰 돌과 철망을 이용한 옹벽과 토낭 층을 쌓는 작업이 이어졌다. 현장에 따라 침식 방지용 풀과 잡초를 활착시키는 공 정도 적용됐다. 빗물이 쓸리며 도로가 파이는 현상을 방지해 줄 U 자형 관과 스틸 덮개가 3 곳에 설치되었고 임도 주변지역 토사 제거와 도로 정비 작업 등도 함께 이 뤄졌다

포천시 산림과는 지난 2014년 예배당 옆 계곡면 붕괴 방지를 위한 사방댐 공사 와 산림 벌목 후 자작나무 식재 등으로 밀알훈련센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



해바라기

제 눈으로 직접 본 그림 중에 반 고호와 폴 세잔의 그림이 제일 많습니다. 한자리에서 그림을 많이 보는 방법은 특별 전시회를 가는 겁니다. 필라 미 술관에서 열린 반 고호의 정물화 특별 전시회에 저는 무려 네 번을 방문했 습니다. 제 기억에 한 번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해바라기가 특별 전 시회로 외출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드나들던 필라 미술관 중앙 벽에 세잔 의 그림과 피카소의 큐비니즘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준 해바라기, 자기 자리를 옮긴 경우가 그때 딱 한 번이었습니다.

해바라기 앞에서면 묻습니다. 내가 이 그림에 감전된 이유를…. 해바라 기에는 여름과 가을이 담겨 있습니다. 여름 끝의 빛바랜 녹색과 가을의 마 른 갈색이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꽃을 담은 꽃병이 왠지 불안정해 보입니 다. 하체가 견뎌낼 무게보다 상체의 무거움이 더 힘겨워 보이는 꽃병에 빈 센트는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 이 만족스러울 때 이름을 남깁니다.

반 고호는 물감을 짙게 바르는 임패스토 기법으로 튜브에서 물감을 직접 짙게 발라 해바라기를 그렸을 겁니다. 붓 터치나 물감의 깊이로 볼 때 순간 에 밀려 나온 에너지를 표출시킨 것입니다. 같은 해 그린 '아를의 별이 빛나 는 밤' 그림을 케나다 토론토 미술관에서 만났는데 저는 낮의 해바라기가 밤 하늘의 별처럼 떠 있는 걸 봤습니다. 꽃병에 갇힌 갈색 해바라기들이 날개 달고 밤하늘 별자리가 돼 아를의 호수위로 얼굴을 드러낸 게 보였습니다.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끈 불끈 솟는 그리움과 마음 가운데로 밀려 나오는 생각들을 다 표현할 수 없어 미칠 듯이 획을 그었던 겁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꽃병의 붉은 선 따라 작 은 송이 하나가 머리를 아래로 향해 떨어질 듯 서있습니다. 그 송이를 그릴 때 반 고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이 그림을 그리고 2년 뒤 스스로 사라집니다. 어쩌면 그의 해바라 기에는 마지막 남은 열정과의 이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20-2 장학대상 365 명 4억3천5백만원

2020 학년도 2 학기 학부 장학대상자가 발표되었다. 장학사정위원회는 지난 22 일 복음관 회의실에서 사정위원회를 열고 이번 2 학기 전체 장학대상인원과 명단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2 학기 장학대상자는 모두 365 명이며 장학금은 총 4억 3 천 5 백만 원에 달한다. (국가장학금 제외)

이번 발표에서 현재 실습과정에 참여 중인 영보 4 학년과 간호 3 학년은 제외되 었다. 이들은 추후 심사과정을 거쳐 추가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최우수장학

최우수성적장학에는 이나현 (성서 4) 학우 등 학과 및 학년별로 18명이 영광을 얻었다. 우수성적장학 (2 등 /3 등) 에는 김명은 (성서 4) 학우 등 총 35 명이 선정 돼 기쁨을 안았다.

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최우수성적장학: 미정
- 최우수성적장학 (총 18명)

성서학과

▲ 이나현 (4) ▲ 고윤호 (3) ▲ 백승인 (2) ▲ 양진성 (1)

사회복지학과

▲ 윤성민 (4) ▲ 고영욱 (3) ▲ 윤지민 (2) ▲ 우민영 (1)

영유아보육학과

▲ 문혜림 (3) ▲ 안소희 (2) ▲ 이민경 (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김모세 (4) ▲ 문진우 (3) ▲ 강민주 (2) ▲ 박혜원 (1)

간호학과

- ▲ 신정은 (3) ▲ 김민주 (2) ▲ 유하은 (1)
- 우수성적장학 (2 등 /3 등 , 총 35 명)

성서학과

- ▲ 김명은 ▲ 안소영(4) ▲ 정현미 ▲ 김미경(3) ▲ 권준영 ▲ 추요셉(2).
- ▲ 조민영 ▲ 김병윤(1)

사회복지학과

- ▲ 허은희 ▲ 최하은 (4) ▲ 이민규 ▲ 유희창 (3) ▲김미림 ▲ 천소영 (2)
- ▲ 김서영(1)

영유아보육학과

▲ 공은서 ▲ 송예인 (3) ▲ 이수정 ▲ 이한솔 (2) ▲ 지다은 ▲ 민다현 (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 조종운 ▲ 김영우(4) ▲ 남현수 ▲ 이예안(3) ▲ 최민혁 ▲ 이제희(2)
- ▲ 이 삭 ▲ 김원형(1)

간호학과

▲ 홍효천 ▲ 김찬영 (4) ▲ 이윤아 ▲ 이은지 (2) ▲ 류가환 ▲ 김혜윤 (1)

교목실 이광삼 목사

「스토리로 배우는 성경」 신약편 발간



교목실 이광삼 목사가「스토리로 배우는 성경」신약편을 출간하였다.

목회 경력 30년의 저자가 최근까지 품어온 과제 한 가지가 있었다. 어려운 성경 을 쉽고 재미있게 안내할 책이 있다면 목회에 큰 도움이 …, 지난 해 내 놓은 구약편 에 호응이 컸고 후속편 재촉 목소리에 신약까지 이르게 됐다.

책은 1부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에서 시작, 6부 요한의 예언 이야기로 종결된다. 복잡한 시대 흐름이 간결한 잣대, 명쾌한 해석의 이야기와 잘 녹아들면서 신약은 한결 재미있고 선명해진다. 컬러풀한 도표와 사진, 소결론과 생각하기를 거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목적지로 모두를 안내하고 있다.

「스토리로 배우는 성경」 신약편 / 이광삼 / 부크크 / 230p / 16.700 원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직원 컬럼 임화석 팀장(전산지원팀)

대학교회 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을 항상 감사 할 뿐입니다. 최근 한 교수님이 숨을 몰아쉬며 제 방에 들어오 셨습니다. 교수님은 성서대학교회가 성서학과 신입생들에게 등록금을 대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숨 가쁘게 전해 주었습니 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서학과는 우리 대학의 '평형수 (平衡水)'라는 것이 제 생 각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평형수의 중요성은 잘 알려졌지요. 평형수는 선박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항해하도 록 배의 밑바닥에 채워 넣는 평범한 바닷물입니다. 풍랑이 몰 아쳐도 평형수가 넉넉하면 견디어 냅니다.

코로나 -19 라는 큰 풍랑 속에서 성서학과는 제 몫을 잘 감 당하고 있습니다, 20-1 학기 후반, 성서학과는 대면교육을 원 칙으로 하여 같이 모여 수업을 하였습니다. 1 학년 학우들도 BRC 를 대면수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 하였습니다. 성서학과에 풍랑은 또 있었습니다. 요즈음 거의 모든 대학의 신학과 입시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많은 대학은 미달 사태입니다.(2면 참조) 우리 성서학과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 니다. 그러나 교수, 학우 모두의 노력으로 정원은 잘 채워졌고 씩씩하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학교회가 성 서학과를 돕는다니 고맙습니다. 이젠 열심히 나가 외칠 것입니 다 . 돈 걱정 말고 성서학과로 오라고 .

오승록 구청장이 노원구내 7 개 대학 총장들과 저녁을 먹 으면서 각 대학에 5억 원씩 모두 35억을 지원하겠다는 거의 폭탄 수준의 약속을 했습니다.(3 면 참조) 저도 그 자리에 있 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자리였는데 그의 35억 약속은 의외였 습니다. 어떤 팡파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저에게 진짜 의 외였던 것은 5억이라는 '일정액'입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우수'등급이 었어도 학교 규모 때문에 액수는 항상 제일 적었습니다. 그런 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모두 똑같은 액수 5억 이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 합니다.

*참고로 이웃 서울과기대 학생 수는 약 18,000 여명, 광운대는 13,000 여명 됩니다.

행복한 미래

나는 현재보다 다가올 미래에 치중된 삶의 방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얼마전 나의 가치관을 점검케 하 는 글을 읽게 됐다. 내용은 이렇다. 지금 우리의 모 습은 미래를 위해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 는 목적과 돈을 모아 내 집을 장만하려는 목적이 같 다. 자신의 자녀에게 교육 잘 시키고 좋은 대학에 진 학과 모두가 선호하는 직장을 정해 입사시키는 것도 동일하다. 노후에 쓸 자금을 마련하고 그래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겠다는 플랜이 최종 목표점이라고 강 조한다. 하지만 중요한 걸 간과했다며 목소리를 높였 다. 바로 현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이글의 저자는 시간이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 는다며 쿡 찌른다. 현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미 래의 행복을 준비하겠다니? 이건 이치가 맞지 않다 고 강조한다. 현재의 삶이 행복해야 다가올 미래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맺고 있다.

나는 책의 마지막을 덮고 생각해 봤다. 현재보다 는 다가올 미래가 중요했다. 그것이 목표가 됐고 그 영향으로 내 삶이 건조하다는 점에 고개가 끄덕여졌 다. 가슴이 뜨끔했다. 갑자기 건넛방의 아이가 보고 싶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선 나에게 녀석이 작은 미 소를 보인다. 덩치는 크지만 눈빛이 여리면서 환했 다. "잘 되고 있지?" 말없이 두 손으로 양 볼을 감싸 며 쓰다듬었다. 따뜻한 감촉이 느껴진다. 그래! 이 런 게 행복이지.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왔다. 미 래에만 연연하다보니 정작 현재를 등한시했다는 점 이 느껴졌다. 나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 인생 플랜 을 현재 70%. 미래 30% 비율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 렸다.

행복한 미래 ? 지금 현재의 만족 여부에 따라 행복 이 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실천하겠다.



교수 컬럼 정해덕 교수(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외래교수 컬럼 최성진 교수 (유아안전교육)

프로그래밍 에러와 산목(插木) 실패의 공통분모는?

사람들은 막상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두 부류로 갈린다. 정면 돌파해 끝까지 해결하거나 그렇지 못한 부류다. 컴퓨 터소프트웨어학과 내에 프로그래밍이 능숙한 학생과 그렇 지 못한 학생이 있다. 왜 그럴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프로그래밍을 하다보면 에러가 지주 발생되는데 이를 포 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경험이 많은 학우가 프로그래 밍을 잘 한다.

2006년 10월 코코스지에 '내 손이 그린 휭거(Green Fingers) 라니 ...'로 교수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 작년 여 름 블루베리에 녹지삽목을 시도하였다가 모두를 전멸시키 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속이 상했지만 노력한 끝에 원 인 한 가지를 찾아냈다. 특히 삽목은 온도, 습도, 배수, 일조량 등의 조건이 잘 구비돼야 새 생명 탄생이 가능하 다. 문제점을 알면 해결은 쉽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 요하다. 수많은 프로그래밍의 에러를 조사와 분석으로 해 결해 왔듯이 밀봉 녹지삽목이 포함된 2가지 해결책이 현 재 실험되고 있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실사 구시 (實事求是,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 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해답을 얻는 것) 정신으로 실학사 상을 집대성, 시대의 방향성까지 제시한 대학자다, 그의 DNA 를 가진 6 대 후손답게 실사구시를 기반으로 시도한 삽목체의 새 뿌리가 45 일쯤이면 나오는데 이를 증명함과 동시에 좋은 발육이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갈 것이다.

야고보서 1 장 2~4 절의 성경구절이 생각난다. "내 형 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복잡한 프로그래밍의 에러 해결에 많은 고통이 수반되 는 것처럼 삽목 과정으로 새 생명체를 키우는 것도 어려움 이 따른다. 모든 영역마다 인내(忍耐)와 실사구시가 더 해질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임을 확신한다.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며..

1900년대 우리나라 초창기 근대교육과 영유아교육은 복 음을 들고 이 땅을 찾은 선교사들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 었다. 이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실천적 삶을 통한 선한 영향력 이라고 볼 수 있으며 .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소중한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기는 인간발달과정 중 가장 역동적이고 급속한 발달 을 보여주는 시기로서 인간발달의 기초적 시기이며, 결정적 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교 육 방법의 특수성 때문에 영유아교육의 질은 영유아교사의 자 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영유아기는 교사의 존재 자체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기독교사는 '교사'라는 직업적 부르심과 '그리스도인'으 로서의 삶을 실현해 가는 사람이다. '교사'로서의 '전문성' 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무 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 하고 영유아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영유아와 동료,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세계와의 관계 에서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

인간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영유이들을 상대하 는 기독유아교사는 먼저 자신이 건전한 자이상을 가져야 한 다.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알 때 다른 사람들, 특히 영유아를 똑같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

또한 요한복음 15 장의 말씀처럼 자신은 나무가 아니라 가 지임을 .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통로임을 기억해야 한다 . 가지 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 어떤 직업 의 현장에서든지, 현재의 코로나 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 운데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 자신 을 내려놓는 감사를 통해 생명의 주님께 붙어있을 때, 그 생 명력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결국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며 ..!



성서대학교회 담임

고승태홀

"목사님, 이제 해외에서의 사역은 그만 두시고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오늘 대답하고 가 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강한 총장님의 음성을 듣던 장소는 고승태홀 가운데였습니다. 인 생의 비어있는 퍼즐을 맞춰야 할 중요한 결정의 순간, 제 눈에 비친 건 지나온 저의 인생 이 아니라 고승태홀 의자였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의자들은 지나온 세월 만큼 천의 주름이 깊었고, 의자의 노란색은 부딪쳐 온 사람들 체중과 옷감의 마찰 만큼이나 바래져 있었습니 다. 이 빛바랜 노란색은 교제가 시작되고 집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서초동 우성아파 트 입구, 지하 다방에서 봤던 그 의자색이였습니다. 고승태홀 의자에서 70년, 80년대 다 방 세대 의자가 2020 년대로 하강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고승태홀은 교우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우들 이 가장 많이 모여 이야기 나누던 공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의자가 부족해서 학교와 이야기 하고 더 가져다 쓰던 기억도 납니다. 부임한 이후 제 머릿속에서 한 번은 꼭 바꾸고 싶은 장소가 고승태홀이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젊은이들 눈에 가장 잘 맞는 공간은 '스타벅스'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 스는 공간에 비해 의자와 책상 크기나 배열이 아주 잘 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낯선 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긴 원목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자신의 일을 하는 시스템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진한 커피향과 편하지 않음에도 편하게 책을 보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서 책을 읽으며 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시원함도 스타벅스만의 특징이 라 생각합니다.

고승태홀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곳에 색이라도 칠하고 그 기둥에 원을 그려서 둥근 탁자를 붙여 놓으면 좋은 시각 효과가 있을 겁니다. 덩그러니 버려진 두 기둥의 공간 사이에 스타벅스형의 의자를 배열하고 유리창 밖 의 공간과 안쪽 공간을 이어줄 문을 내고, 지붕이라도 들러 준다면 또 하나의 거리 카페가 생길 겁니다. 크게 리모델링하지 않고 의자와 몇 가지 포인트만 바꾸어도 교우와 학생들에 게 좋은 공간이 될 겁니다.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 하실지…. 하지만 오래 가지 않고 행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73

비울음 이재무

비 오는 밤 창문을 열고 손 뻗어 빗소리를 만져봅니다 가만히 소리의 결을 하나 둘 헤아려 봅니다. 소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소리 속에 집 한 채를 지을까 궁리합니다. 기실 빗소리는 땅이 비를 빌려 우는 소리입니다 저렇게 밤새 울고 나면 내일 아침 땅은 한결 부드럽고 깨끗한 얼굴을 내보일 것입니다 비 오는 밤 창문을 열어놓고 손 뻗어 땅의 울음을 만져 봅니다





▲ 바다 방에서 유아들이 비닐을 찢고 던지며 신체활동을 즐기고 있다.

신나는 여름, 즐거운 놀이방

지난 13일~21일 대학어린이집에서는 전체 영유이를 대상으로 '즐거운 놀이방'을 진 행하였다.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 반씩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기 존 물놀이를 대체할 재미있는 놀이 등이 펼쳐졌다.

첫 번째 방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비닐 찢기, 낚시 놀이, 백업 담고 쏟기 등 유이들이 바다의 모습을 상상하며 다양한 신체놀이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었다. 두 번째 방에서는 '수박'을 주제로 수박 빙수 만들기 . 부채꾸미기 . 카드 게임 등 정적인 상황에서 여름을 즐 겨보는 활동이 함께 이어졌다.

유아들은 상상력이 가미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신체발달, 창의성, 인지 등 전인적 발달 을 높여가는 시간이 되었다. [감사반 민주이 교사]



▲ 직원이 어르신에게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안내중이다

전자레인지를 위한 모금--각계 성원

월계복지관은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여 모두 40 대를 구입 .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렸다 . 복지관은 지난 2 월부터 임시 휴관인 상태에서 저소득 어르신께 제공해 온 경로식당 식사를 주 2 회 대체식으로 바꿨는데, 대체식은 즉석 밥. 레토르트식품 등으로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냄비. 밥솥. 프라이팬으로 조리하여야 하 는 불편함이 있었다.

우리복지관은 전자레인지 없는 어르신을 조사하여 6월 한 달 동안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총 200만 원을 목표하였는데 아름다운 이웃 업체. 운 영위원, 지역주민, 직원, 후원자, 해오름 봉사단 등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후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구매한 전자레인지 40 대를 7월 넷째 주간에 어르신들 가정으로 직접 전달해 드렸다. 코로나 19로 어렵지만 이웃들의 착한 나눔으로 한결 따뜻한 마을이 되어 가고 있 다. [홍유민 사회복지사]

▲ 유이들이 바닷물고기 덩치 인형극을 감상 하고 있다.

생태친화적 환경 만들기

지난 8일 꿈빛어린이집 만 3세 유아들은 노원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진행한 '바다 물 고기 덩치' 인형극을 감상하였다. 지난 5월경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북극곰 윈스턴. 지구온난화에 맞서다」동화를 중심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 경험이 있다.

인형극에서는 주인공 덩치의 형상과 역할 및 스토리에 집중하며 관심을 보였다. 바닷 속 덩치가 사람들이 사용 후 버린 환경쓰레기를 먹고 고통 당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나 타냈다. 유이들은 덩치가 겪은 아픔의 원인인 쓰레기 배출 및 환경문제의 심각함 등을 스 스로 인식하는 시간이 됐다.

어린이집은 앞으로도 유이들과 코팅지 줄이기, 재활용품으로 미술활동 창작하기 등의 생태친화적 환경 만들기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 [목련반 이유진 교사]



▲ 성도들이 신설된 1 부 예배를 마치고 함께 하였다.

1 부 예배 신설

성서대학교회는 지난 19일 주일부터 1부 예배 (오전 08:00)를 새롭게 신설하고 첫 예 배를 가졌다. 이번 개설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 따라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피 하기 위한 방안이다

총 60 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1 부 예배에는 보다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면 서 모두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8월에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연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 아쉬움이 크지만 교회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 19의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오종철 목사]



▲ 유이들이 야외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습.



▲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 안내 포스터



▲ 교사들이 소그룹모임에서 놀이중심사례를 공유 중이다.



▲ 유이들이 조리도구와 관련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 즐겁게 극복하기 프로젝트

코로나 19로 심신이 지친 영유아와 학부모를 위한 '코로나 19 즐겁게 극복하기 프로젝 트'를 가졌다. 내용은 '우리아이 깨알 영상 콘테스트'와 '더위 극복 SMALL 물놀이'그리 고 '초복 DAY'를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아이 깨앜 영상 콘테스트'는 집에서 놀이하는 동영상을 친구와 학부모가 이를 보고 투표해 시상 . 이해와 친밀감을 맛보게 해 주었다 . '더위 극복 SMALL 물놀이 '로 어린 이집에 낚시, 물풍선, 물총, 수정토 놀이를 하며 더운 여름을 물과 시원하게 보냈다, 마지 막으로 '초복 DAY'는 텃밭의 상추를 삼겹살과 함께 먹고 가정에 수박 한 통씩 보내 복날을 지내도록 하였다. 학부모들은 가정과 어린이집이 연계해 즐거운 놀이를 경험했다며 멋진 활 동을 계획해 줘 만족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맑은반 고하은 교사]

생태친화어린이집사업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태친화어린이집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생태친화 보육은 아이의 욕구 중시와 아이다움의 구현을 돕는 교육으로 아이들이 밝고 . 천진난만하면서도 활 기차게 기르려는 목적을 갖고 보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업은 5개의 거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컨설팅, 원장세미나, 생태보육기관 참관, 실내 환경 개선하기를 통해 지원된다 . 또한 , 노원구 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소그룹 연구 모임을 지원하는 디딤돌공동체도 운영한다. 디딤돌공동체는 생태친화 보육에 대해 스스로 실천 연구해보는 모임으로서 총 34 개 어린이집 총 79 명의 보육교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노원구 내 어린이집이 가정과 함께 자연 · 놀이 · 아이 중심의 생태친화보 육이 잘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보육전문요원 한민희]

맞춤 컨설팅

상계 5 동어린이집은 지난 7 일 서울시 주관으로 놀이에 대한 이해와 하루일과 지도 향상 을 돕는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맞춤컨설팅'을 가졌다. 개정된 누리과정에 맞춰 영유아 놀 이지원과 확장 및 교사의 정체성과 이해를 돕는 컨설팅이다.

먼저 교사 소그룹모임을 통해 각 반에서 영유아 중심의 놀이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장단 점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교사 소그룹 모임은 영아반(만0세~2세)과 유아 반(만3세~5세)으로 이어졌으며, 각 반에서는 영유아 중심의 놀이 사례를 공유하는 시 간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면밀한 관찰 시 느낌과 놀이지원 형태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 등이 오갔다. 교사의 역할과 수행 및 정체성 등을 점검하며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 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어린이 위생 · 안전교육

지난 9일 늘사랑어린이집 만 3세 유이들은 '조리실에 들어가지 않아요!'를 주제로 어린 이 위생 · 안전교육을 받았다 . 노원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어린이 위생 · 안전교 육은 호기심 가득한 유이들이 조리도구를 만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한 사전 예방 교육이다. 어린이 사고의 일부분은 조리도구와 관련된 피해인 것으로 밝혀지

교육은 팝업 북을 통해 조리실의 각종 조리도구 등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그림과 사진 등으로 인식토록 하였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노래가사에 재미있는 율동 까지 더해져 참여열기도 고조되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조리실의 청결과 위생의식은 물론 조리와 관련된 안전의식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긍정적인 시간이 됐다.

[신나는반 조유진 교사]

바닥재 전면 교체

충무어린이집은 지난 4일 ~ 5일까지 어린이집 교실의 바닥재를 전면 교체 공사를 진행 하였다. 이번 공사로 낡고 오래된 바닥재를 교체해 보육환경이 좀 더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 으로 개선 되었다. 바닥재는 편안한 쿠션감이 있으면서 시각적으로 싫증나지 않을 자연 미 색과 가까운 디자인을 골랐다. 이밖에도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하루 일과를 돕는 여 러 요소가 고려되었다.

교사들은 이번 교체 작업의 준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며 공사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조력하였다. 충무어린이집은 앞으로도 꾸준한 시설 관리로 영유 아들의 안전과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충무어린이집 최은나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0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내기부

■ 국외기부 PayPal: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384 048 3592 _ Routing No.: 121 000 248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접수처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강진(총장사모) 강우정 강진(총장)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9000만원(운영) 612만원(운영) 610만원(운영)

메풀전산초학술재단 김은호(성서학 교수)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200만원(장학) 117만원(운영) 1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무 및 가족

1구좌 강신용 김도훈 김민정 김응환 김한나 류희정 문수란 박재신 박창민 서유미 서은숙 손영화

손윤숙 송원복 송현미 오찬양 이근중 이상진 이수경 이진경 이화연 장순호 정혜문 조소연 조유민 신에스더

1.5구좌 이예람

고난홍 김연주 김태분 손성원 2구자 송만호 이의선 장재경 최수지

홍진옥

3구좌 공복순 문순일 전지혜 황영숙

4구좌 박주은 5구좌 김진경 양연주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김요셉 2구좌 이영림

3구자 김재임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전광선 9구좌 반이혀 10구좌 김현욱

부설기관 1구좌 임재택 성서선교회 1구좌 오성군 2구자 금촌성서교회 3구좌 동두천성서섬김교회

10구좌 다빛교회 평화교회

1구좌 안종민

일 반

3만원

권영욱 박영해 박영희 박해숙 1구좌 오미라 이우윤 임화경

3구좌 장문석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1만원 강동란 김샛별 민이삭 정다운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다솔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정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정희 김지선 김지원 김 진 김진영 김진하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긴화태 긴효래 나선영 나례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상수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연서 박영근 박윤복 박재신 박재윤 박<mark>종주</mark>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해정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유미 서 융 서정민 서지혜 서희영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민규 송성은 송영자 송원복 송유지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은희 오찬미 오채엽 오흥복 용이름 우승연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유소담 유양숙 유영진 유주홍 윤솔이 윤영원 윤예서 윤정숙 윤지준 윤현묵 윤혜자 이광석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준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은영 이정모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연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진주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찬웅 장순호 장윤국 장희남 전다현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이름 전이영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영교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경애 조믿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화 조태환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지유정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인호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선화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성광 한원창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정심 황선명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2만원

이예람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기옥 김미나 김미향 김복녀 김성애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인화 김일한 김재원 김정복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재송 방민지 배민정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양승용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유의숙 윤광길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상진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임수경 임은희 임지현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정주영 최상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홍진옥 황보혜영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동교 김민주 김석환 김우선 김종숙 김태영 나예원 남지원 문순일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양연선 양혜영 오유경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우진 이윤성 이재국 이주연 이지연 이현지 이혜민 인지은 임유림 장영훈 장혜란 전다정 전영이 전지혜 정슬기 조서윤 주인정 최광희 최소린 최양서 최흥식 홍석화 황영숙

박주은 신은진 이기용 4만원 강경옥 길소윤 김기국 김연진 5만원 김종남 김준오 김진경 남희경 박광필 박지혜 송복순 송현미

기부자 명	단 : : : : : : : : : : : : : : : : : : :						
6만원 8만원 10만원	신상춘 안선례 양원석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장은희 조연정 조유진 천유림 최종건 허성희 흥현숙 무 명 정동주 배정환 임연식 김동관 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30만원 500달러 117만원 612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이강동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최영태 임지영 최선희 강일아 김은호 강우정:강 진	2만5천원 3만원	양태환 오경모 유정선 이승림 이윤봉 이은영 장진희 전광심 정명수 조성민 최영태 황서린 권경만 김미선 김은미 김혜옥 유형창 김동수 김원태 김일선 김현석 송재철 유은주 이숙영 조혜경		김진영 노용현 노은경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안애숙 오미라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민우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11만원 20만원 100만원	서수경 신치선 임현필 장명헌 유선미 김남웅 이례장학	4천만원 부설기관 1만원	무 명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문유나 박제하 오윤아 이다솜	4만원 5만원	최대만 변경선 서윤희 강성훈 길용희 김동선 박세건 이은실 이정임 전명진 최정권 한진호		이현수 이혜숙 임숙자 장명웅 정은영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춘경 황영수 위샐러듀
재학생 및 1만원 2만원 3만원	가족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김선경 김양순 김은이 김혜미 류한나 박기영 박대종 박민희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안양희 윤효심 이광승 이나라 이동기 이성란 이혜진 임동현 임동화 장영철 전계화 전명자 전용숙 정창금 강세윤 김형태 박혜숙 서성식 엄미자 이마리 이영림 전옥순 최혜진 홍은선 1원중 김은선 김재임 박인순 박재완 배정숙 안태유 이종권	5만원	한 다시 다시에 오픈 아이나라 이유진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하성보 장윤정 전안나 홍옥주 권효진 김선화 김은솔 김현애 박미애 박천순 변송이 송애솔 위소진 유정현 이선정 이효빈 박미선 박연희 서영숙 신영자 여미희 이지면 장나례 강진아 권정아 이인경 장수진 조지선 지주나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차 건	10만원 610만원 성서선교: 1만원 2만원	권태완 김웅기 성서대학교회	2만원 3만원 4만3천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단체 및 2	강명옥 길옥석 김성래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문광철 서병준 서성원 우윤주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진성용 최국열 최지면 허정안 홍춘호 김미수 김종환 윤미선 장문석 박은영 강한성 김종무 서미혜 석지현 오계순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류동원 박경혜 박순정
4만원 5만원 31만원	조대의 박지성 김성안 김종호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전영준 정미영 신영옥	권선제일교	오동준 ^{민회} 이상규 권선제일교회	5만원 10만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월계성서교회 일동성서교회 중앙성서교회 권사회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검찰 무 명 현희철 김윤구 신인자 삼일성서교회	1만원 2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늘푸른교회 /마음교회/밤키즈푸드/목양교 회/행복한교회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 트코리아/성복중앙교회/아인
교직원 및 1만원	강신에 권관희 김다윗 김미영 김병수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영직 김유진 김지성 김지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문지예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배 윤.김현진 서효정	12만원 15만원 24만원 수원교회 1만원	황인돈 김순자 이혜선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강동형 김미영 홍성호	3만원 4만원 5만원	안경원/열방교회 꿈꾸는교회/새샘교회/우리교 회/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님의교회/플랜팅시즈 다음립교회/미사목민교회/상 일교회/예일에드컬/찬성교회/ 하늘누림교회/행전교회/향기
	박주양 서광철 서의영 안수자 양승원 양윤식 윤경민 윤명섭 이문자 이승역 이종우 이지민 이지희 임수아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정보미 정진주 조철남 조형섭 하희수 허윤민 홍세영 황찬범 요시다고조	3만원 서문교회 1만원 1만5천원	곽성국 장은경 장석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정찬수	이레교회 1만원 장자교회 4만원 5만원	손미희 이채은 권정숙 장자교회	10만원 13만원	나무 (주)바다니라/가성교회/구리성 광교회/구리중앙교회/대광교 회/두암산업(주)/만나교회/상 록교회/오감발달연구소/청평 교회/평안교회(송파) 우리회
1만5천원 2만원	정지용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은실 김장호 박태용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장길정 장지슨 정순에 정은상 최난영 한사만 한정숙	석계제일교 1만원 성서대학교	채용문		유병우 정우진 <mark>일교회</mark> 유재란 퇴계원제일교회		(주)소원기건/생명샘교회(성주) /제트전기 염창중앙교회/한민제일교회 서부중앙교회 메풀전산초학술교육재단
	김덕원 김미숙 김성호 김은영 김창현 박성범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유다운 유수연 이소연 이호섭 전영호 민찬양 임경미		강경혜 고미숙 김경일 김다혜 김덕현 김배열 김병철 김상은 김승환 김신덕 김윤선 김주혜 김지윤 김향순 김혜진 김희현 남윤주 남지영 류 강 박상희	평원교회	성경아	누계(202	200621~20200720) 137,700,187
5만원 6만원	권순범 김덕현 김원빈 김현동 박인혁 신지수 유미나 이광삼 이복남 이정희 장정순 최사랑 한재희 이성아 임환석		박영숙 박영신 박이숙 박주형 박천순 박태수 방미경 백순옥 서윤희 서 훈 신양금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경원 오종철 용정자 유중엽 이가은 이경신	10만원 풍암교회	안종민 안지선 평화교회 유금례 윤은정	누계(202	200301~20200720) 358,944,100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정숙 김정원 김정원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신금주 안정선 양혜경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소정 이은주 장성희 장인순 정산열 정순례 조현진 조혜경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김중완 최지은		이관영 이길은 이노선 이대영 이대우 이길은 이노선 이대영 이대우 이대한 이소정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정철 이종옥 이지수 이진호 임성일 임숙정 장근문 장흥림 전옥순 정나영 정도유 정무실 정선희 정승연 조건희 조병하 조정선 조준희 조현진 최미숙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허진순 이에스더	함평대동: 1만원 효성교회 1만원 2만원	교회 김희경 오혜숙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무 명		
11만6천원 12만원 13만원			김영헌 유상호 최우림 강규성 강유진 고경숙 김민자 김예지 김인영 김정숙 노봉환 무 명 박선하 박성환 박온유	1만원			